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전적인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힘 들어간 글은 쓰고 싶지 않았다.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른 짧은 가방끈을 생각하면 그런 글을 쓸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청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재(財)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무엇이기에 재의 추구가 청렴의 결여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언젠가 읽었던 책을 다시 집어 들어보기도 했지만 결국 글의 물꼬를 트는 것은 어린 날의 나와 아버지를 추억하는 데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야, 저기 ‘사팔이’ 지나간다.”

“눈 봐라. 완전 징그럽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나는 꽤 유명한 녀석이었다. 동네 떠돌이 개라든가, 동네 바보 형이라든가 하는 그 정도 존재가 갖는 인지도는 있었던 것 같다. 4, 5살 무렵 내게 갑자기 찾아온 사시는 상태가 아주 심해 검은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오른쪽 눈만 그렇다 보니 정상인 왼쪽에 비해 더욱 대비되어 보였고 결국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자기네들과 다른 ‘사팔이’에게 친구가 돼줄 아이는 없었다.

아이들이 어린 탓에 나를 따돌렸으리라 생각하며 이제는 혼자만의 용서를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들의 시선이 더 미웠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면 내 눈이 주는 이질감에 수십의 시선이 닿곤 했다.

“아줌마, 애 눈이 왜 그래요?”

어느 어른들은 기어코 그 이질감에 의문을 터트렸었다. 배려 없는 질문이 지하철 안을 정적으로 만들 때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없이 옆 칸으로 가곤 하셨다. 이런 일들이 나를 애 같지 않은 애로 만들지 않았나 싶다. 시선폭격에 시달렸던 나는 무관심을 갈망했었다. 언젠가 수업시간에 방관도 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차라리 방관이 낫다며 어린 냉소를 보냈던 기억은 지금도 서글프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돼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던 나와 달리 아이들은 구슬

치기로 바꿨다. 대결에서 제 것을 잃어 안타까워하는 녀석의 탄식이 뒷자리에서 들려올 때면 그것조차도 나는 부러웠다. 그 탄식을 내는 것에도 대결에 낄 자격이 필요했으니까. 그 자격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토록 무관심을 원했으면서 참 모순되게도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다. 외로웠다.

언젠가 놀이의 형태가 구슬치기에서 팽이치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방영되던 팽이대결 만화의 영향이었다. 구슬이야 500원으로도 한 꾸러미를 살 수 있는 것이었지만 플라스틱 소재의 팽이는 초등생에게 제법 고가의 물건이었다. 만화에 푹 빠졌었던 나는 어머니를 졸라 기어코 팽이를 손에 쥐었다. 문방구에 있던 팽이 중 제일 크고 화려한 것이었는데 며칠 집에서만 가지고 놀다 하루는 학교에 가져가 보았다. 아마도 그날이었을 거다. 아이들이 날 부르는 호칭이 사팔이가 아니라 00이가 되었던 게. 기분 좋았다. 관심은 꽤나 달달한 것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아이의 조름이란 부모에게 꽤 치명적인 것인지 며칠 안 되어 나와 같은 팽이를 하나 둘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고 팽이가 혼해질 때 쯤 자연스럽게 나는 사팔이로 회귀했다. 재(財)가 관심으로 전환되는 순간의 달콤함을 이미 맛 봐버린 내가 다시 혼자만의 학교생활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기존의 팽이를 뛰어넘는 ‘개정판’의 팽이가 출시되었다.

더 커진 크기에, 다양한 색, 튼튼해 보이는 플라스틱 외관까지. 다시 관심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 제격이다 싶었다. 하지만 지난번 팽이를 사주셨을 때 어머니는 이미 한 번의 한계를 허용하셨기에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던 와중, 문득 떠오른 내 아버지의 지갑. 늘 같은 자리에 있던 그것.

나의 아버지는 “그 집 아저씨 사람 참 괜찮더라.” 라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주 언급되던 분이다. 경찰공무원이신 아버지는 늘 정갈한 분이셨다. 휴일에도 평일과 일어나는 시간은 같았고, 늘 세수를 말끔히 하고 신문을 보던 분이다. 그런 성정만큼 당신의 지갑도 늘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책상 위에 두곤 하셨다. 그걸 보고는 어리고 겁 없는 계산들이 바빠 흘러갔던 것 같다.

‘지폐 한 장쯤 없어져도 알지 못하실 거야. 만일 걸린다 해도 때리진 않으실 거야. 내 체벌은 항상 엄마가 하셨잖아? 엄마가 때리는 건 건달 만해.’

놀이터로 간다는 핑계와 함께 집을 나와 곧장 문방구로 갔고 결국 나의 범행은 실행됐다. 지폐와 바꾼 팽이는 내 손에서 늠름함을 뽐내고 있었고 나는 다시 한번 사팔이에서 00이로 불릴 순간을 기대하며 죄책감을 잠시 잊었던 것 같다.

뿌듯한 감상을 끝낸 후, 경찰 아버지의 도둑 아들이 되었다는 현실에 되돌아오자 무서울 법한데도 제법 침착하게 추가범행을 이어갔다. 팽이는 소화전에 잘 은닉하여 어설픈 증거인멸을 했고, 거스름돈은 주머니에 넣어 손으로 째 쥘 채 집으로 돌아갔다.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감추려는 어린 도둑의 치밀함이었다. 게다가 팽이도 우리 층이 아닌 몇 층 아랫집의 소화전에 감추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초범치고 보통은 아니었다 싶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드디어 집 현관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단 한 마디도 없이 나를 맞으셨다. 무언가 다른 집안의 공기에 떨리는 심정으로 신발을 벗는데 뒤쪽에서 아버지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섭이 왔냐. 이리 와봐라.”

지갑이 있던 그 방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나는 천천히 방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동전이 내는 소리를 막으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지갑 네가 손댔냐?”

“.....”

이미 다 알고 계신 물음이었다. 그 순간 밖에 계시던 어머니가 방문을 조용히 닫으셨고 방안에 아버지와 나만 남게 되자 주머니에 넣은 손을 더욱 째 쥐게 되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미 꿰뚫어보셨을 테지만 아버지는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고, 실망이 크실 법한데도 손찌검은커녕 자식에게 새끼나 놈이란 말도 쓰지 않는 존중을 보이셨다.

“대답해봐라. 지갑 네가 손댄 거냐?”

“그게 사실은.....”

그 강한 부드러움에 결국 나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소화전에서 다시 팽이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체벌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이 이어졌다.

“이 팽이, 네 용돈으로 산 거였으면 혼 안 냈을 거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네 자유야. 근데 돈 쓰는 게 떳떳하려면 그 돈 자체가 떳떳한 돈이어야 한다.”

“.....”

“방에 들어왔을 때 네 모습 좀 생각해봐라. 인정은 안에서 먼저 받는 거다. 밖에서 팽이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도 결국 집안에선 손이 주머니로 숨는데 얼마나 떼떼하지 못하냐? 다신 그러지 말아라.”

지폐가 팽이로, 팽이가 관심으로 전환되던 그 달콤함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내게 며칠 집안일을 부여하셨고, 서툰 솜씨로 떼떼한 지폐만큼의 일을 치렀다. 그러자 서랍 안에 있던 팽이가 내 손에 주어졌고 그제야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주머니 안에 숨어 움츠러들었던 손이, 이제는 집 안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팽이를 가지고 놀게 된 것이다.

인터넷뉴스 사회면은 공직자, 기업가의 온갖 비리, 횡령, 탈세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평생 쓰고도 남을 부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도 어린 날의 나처럼 재(財)가 주는 전환의 달콤함에 빠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형태와 크기는 다를지라도 분명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안정감과 사회적 인정 등이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사람이 살아가며 쌓는 ‘탐’에서, 가장 아래에 있지만 가장 큰 기저를 이루는 것은 바로 남 앞에 떼떼할 수 있는 ‘인성’임을.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브라질의 국민적 영웅이나 다름없던 전 대통령 룰라는 비리 사건이 훗날 터지며 결국 추락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관(官)과 기업을 감시할 시민의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크고 작은 비리들이 관행이 되어버렸고 자체정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 관행들은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그 고리를 끊는 것에 있어 지금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리로 점철된 한보철강 부도가 일어나 나라가 뒤흔들렸던 1997년,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스물이 되었다. 그 아이들이 청년의 이름으로 쌓아갈 하나하나의 탐들이 모두 합쳐져, 그것이 곧 나라의 기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청년의 범주에는 나 또한 속해 있다.

팽이를 갖고 싶어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던 사팔이 소년은 사시 콤플렉스와 따돌림으로 고교 자퇴라는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수회에 걸친 수술을 통해 오른쪽 눈의 외관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지만 시력은

이미 오래 전 죽어버려 살릴 수 없는 상태다.

비록 세상의 반은 보지 못할지라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른 일을 천직으로 삼고자 다짐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였고 낙방과 재도전 끝에 올해 필기합격이 유력한 점수를 확보하여 면접 준비 중에 있다. 그와 함께 아버지는 내년 정년을 앞두고 계신다. 아버지의 끝과 가까운 지점 어딘가에 내 출발선이 있다는 비애가 못내 사무친다.

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하며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져야 했을 때 그리고 이른 결혼으로 책임질 사람이 하나 더 늘었을 때 그 책임감의 버거움에 숨 가빠하곤 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셨을지. 외벌이에 아픈 엄마, 아들 둘. 거기다 한 녀석은 외눈박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원칙을 지키고 오직 주어진 것만을 받으며 사는 삶이 버겁진 않으셨을지.

“너랑 너희 형은 순도 백 프로짜리 쌀 먹고 컸다. 그거 다 정직한 쌀이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범인 잡아도 서로 바로 안 가고 여관에 수갑 채워놓고 같이 자고 그랬어. 그렇게 버티다 그 범인 잡는 경찰 앞으로 특진 포상 공고되면 그제야 서에 가서 범인 넘기고 특진 받고 그러던 시절이다. 그래도 난 안 그랬어.”

언젠가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다. 아버지는 뚝뚝하고 또 뚝뚝한 답을 쌓아오고 계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쌓아올리신 그 탑에 나는 아들로써 자랑스럽게 청렴(淸廉)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합격하여 임용이 된다면 나 또한 공직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평생 청렴하겠다는 각오가 언젠가 흔들릴 시기는 분명 올 테지만 그때,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을 기억하며 마음을 붙잡을 것이다.

집을 나와 얻은 내 월세 단칸방의 식구가 내년이면 셋이 된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나 또한 갖게 된 것이다. 젊은 날 아버지도 흔들리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며 버티셨을 거다.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 재(財)의 추구하고 전환은 뚝뚝한 외양을 갖춘 채 가족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곧 청렴이 실현되는 한 모습 아닐까. 가족 앞에 뚝뚝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어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2016/06/22 수



그간 수고 많았고.. 면접 합격 기원..

혹 탈락하더라도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다시 도전하길..
합격하여 임용될시 늘
봉사하는 마음 갖도록..
개인의 영위란 처자식
책임질 정도면 충분.
욕심 갖지 말도록..
떳떳한 공직생활 기원하며 아버지
2대째 공직 이어준다면 아버지
몹시 기쁘게 생각
부정 저지르지 않아 밥 술 뜨며
마음 편히 지낼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버지 공직생활 37년중 가장
큰 수확은
아들이 공직 이어가려고 하는 것
수고 많았어